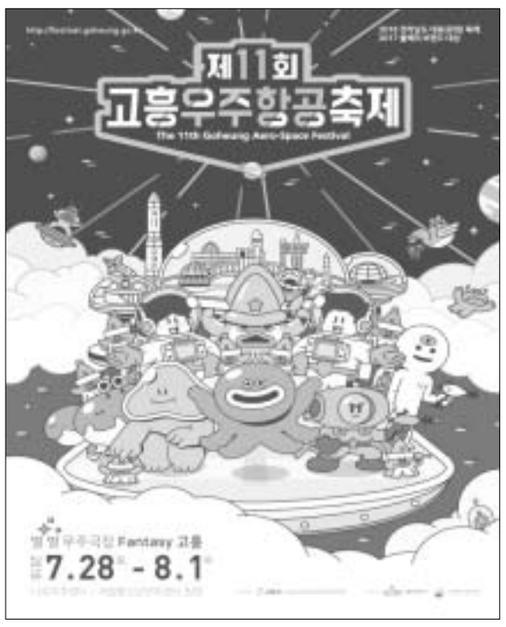
전국 유일 '제11회 고흥 우주 항공 축제' 개최

오는 28일부터 8월1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일원



고흥군이 오는 28일부터 8월1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별★별 우주극장, Fantasy 고흥'이라는 컨셉으로 전년도 대표 프로그램인 BigBang 3 프로그램을 BigBang 4로 강화하여 콘텐츠 파급력을 높였다.

먼저, BigBang 1은 우주로 가는 유일의 '스페이스 플랫폼'인 나로호발사현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우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후 축제기간에만 관광객들이 현장견학 할 수 있다.

두 번째 BigBang 2는 '스페이스 뮤지엄'으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체험이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는 상설·기획·야외전시, 3D·4D영상관 등 72종의 전시 체험이 가능하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인승 우주선조정, 4D 시뮬레이터, 천체투영관 등 우주과학 특성화 체험이 가능하다.

세 번째 BigBang 3는 '스페이스 로봇세상'으로 로봇과 드론체험을 진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싱 공연과 달리기 경주, 복싱·축구로봇 조종체험 등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드론 부스에서는 레이싱 드론을 통한 영상감상 체험과 전문가급 촬영드론을 이용하여 축제장 주변 영상체험, 미니드론을 이용한 플라이 체험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BigBang 4는 '스페이스 체험난장' Kid's 어드벤처와 물의 난장이다. Kid's 어드벤처는 2017년 처음 도입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탑승형 로봇과 고스트모터 체험이며, 물의 난장은 안개분수와 분수터널이 있는 우주항공파크에서 물총, 물풍선 등 다양한 퍼포먼스 도구를 이용한 물총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나로호 우주 발사 현장을 축제기간동안 선접수 형식으로 개방한다. 발사현장 견학 접수는 지난 3일부터 나로우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제11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테마프로그램(Big Bang)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우주 관련 시설의 콘텐츠를 확장하여 순수 과학 체험 축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전국 유일의 우주항공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우수성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구례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위생교육

여름철 성수기 대비 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

구례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섬진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고객 응대 요령, 친절 서비스, 식자재 관리, 소화기 사용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순천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군 교육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이루어진 만큼 구례를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아동폭력 싫어요' 장성군, 아동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아동 1000여명 대상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공연 두차례 열어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아동학대와 성폭력 대응력을 길러주는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처 상황을 다룬 어린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 공연을 열었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는 학교나 주변에서 폭력 상황이 닥쳤을 때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음악과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시키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연이다.

오전, 오후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된 공연에는 장성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공연을 관람하며 배우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시종일관 흥미롭게 관람했다.

공연을 이끈 아동극 전문극단 '케이뮤지컬 컴퍼니'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꾸며 공연 내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아이들도 공연단이 알려주는 '싫어요', '안돼요,' 부모님께 여쭤 볼께요' 같은 문장을 외치며 호응을 보였다.

장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아동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방 교육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공연을 즐기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드림스타트는 관내 저소득 계층의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예방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확정

회천 군학마을 어촌분야 특화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보성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모에 회천 군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성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군학 특화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심사서류 준비,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회천 군학마을에 어촌 특화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쉼터, 커뮤니티센터 및 자연캠핑사이트 등 기초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이순신 출정 탐방로 및 마을 안길정비 등 지역경관개선과 마케팅·서비스·정보화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촌분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어촌 지역에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어업과 어촌의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 단위 지역특화사업이다.

군학마을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군사, 군량 등을 모으고 첫 출정을 나간 곳으로 군영지 석축 일부와 샘, 들석, 활사장 등의 역사유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청정해역 득량만의 어족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한 어·농 복합마을이다.

김철우 군수는 "농산어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마을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어촌마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교육

생활개선회원 60명 대상…키틴분해 미생물과 미량요소 등

함평군이 지난 3일 함평군생활개선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능성 키틴분해 미생물과 미량요소, 비료배양 및 황토유황 제조 이론을 설명하고, 곧바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결의도 실시하며 안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함평군 여성농업인을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 기술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